

작품 내용

제 목	검은 코트의 관리자
내 용	비가 내리던 늦은 밤. 서울의 오래된 골목 끝, 작은 복사집 하나만 불을 밝히고 있었다. 간판에는 희미하게 ‘은하 출력센터’ 라고 적혀 있었다. 가게 안에는 스물셋의 대학생 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졸업 전시 마감은 이를 남았고, 디자인은 아직 반도 완성되지 않았다. “그림 몇 장쯤은 인터넷에서 가져와도 괜찮겠지...” 지훈은 검색창에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을 띄웠다. 색감도, 구도도 완벽했다. 그는 이미지를 저장해 자신의 포스터에 끼워 넣었다. 순간 화면이 이상하게 깜빡였다. 지지직지직. 노트북 스피커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그 그림, 누구 건지 알고는 있나?” 지훈은 놀라 주변을 둘러봤다. 복사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화면을 보자 포스터 속 인물이 움직이고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 캐릭터가 모니터 안에서 지훈을 노려보고 있었다. “뭐야... 버그인가?” “버그 아냐.” 캐릭터가 말했다. “나는 버려진 창작물들의 관리자야.” 지훈은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 인터넷에 있으니까 써도 된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밤을 새워 그 그림을 만들었어. 누군가는 생활비를 아껴 장비를 샀고, 수백 번 실패했겠지.” 화면 속 배경이 바뀌었다. 작은 원룸. 컵라면. 끝없이 수정된 스케치 파일. 지훈은 한 여자가 태블릿 펜을 쥔 채 졸고 있는 모습을 봤다. “이 사람이... 원작자야?” “그래.” “하지만 난 그냥 과제인데...” 검은 코트를 입은 캐릭터는 조용히 웃었다. “모든 흠침은 늘 작게 시작해.” 그 순간 지훈의 포스터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글자가 깨지고 이미지가 지워졌다. 마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왜 이러는 거야?” “남의 시간을 훔쳐 만든 결과물은 오래 남지 못하거든.”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미지 파일’을 가져온 게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 삶의 일부를 가져왔다는 걸 느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캐릭터가 손가락을 튕겼다. 화면에 새로운 창이 떴다.

.사용 허가를 요청하기
.출처 표기하기
.직접 만들기

“저작권은 창작자를 묶어두기 위한 족쇄가 아니야.”

캐릭터가 말했다.

“누군가 계속 창작할 수 있게 지켜주는 약속이지.”

비가 그칠 무렵, 지훈은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서툴렀고 오래 걸렸다. 하지만 새벽 다섯 시쯤 완성된 포스터에는 처음으로 자신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졸업 전시회.

심사위원 한 명이 지훈의 작품 앞에 오래 멈춰 섰다.

“완벽하진 않네요.”

그가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느낌이 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웃었다.

그날 밤 이후, 그는 더 이상 남의 그림을 몰래 저장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에 드는 작품을 발견하면 작가 이름, 출처를 확인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가끔 비 오는 날이면, 그는 아직도 그 복사집을 떠올린다.

모니터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검은 코트의 관리자를.